

밥다다의 가슴의 옥좌에 앉혀질 모든 이의 평등한 권리.

오늘의 집회는 지식의 갠지스강들과 지식의 대양과의 만남이며 이 집회에서 자녀들은 모두 아버지와의 영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있다. 아버지는 영적인 자녀들을 봐서 기쁘고 자녀들은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기뻐한다. 지난 사이클에 아버지를 알아본 영혼들이 지각의 요가를 통해서 자기들이 지난 사이클의 바로 그 영혼들이라는 것과 동일한 아버지를 다시 한 번 찾았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들은 희열, 행복, 사랑, 기쁨의 그네를 타고 있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난 사이클의 자녀들은 이를 다시 한 번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그 옛 인식을 또 다시 기억해냈다. 그 기억의 화신으로서 사랑의 대양에 잠긴 채로 그렇게 사랑하는 영혼들은 이 특별한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 자녀인 너희 모두 사랑하는 영혼들이고 너희가 여기에 온 것은 사랑의 순수한 관계 때문이다. 그렇긴 해도 너희는 사랑에 있어서 등수대로다. 일부 어떤 영혼들은 사랑에 잠겨있고 나머지는 각자의 수용 능력에 따라 만남을 경험하고 있다. 일부는 이 영적인 만남의 희열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쨌든 영혼들 모두가 사랑하는 영혼이라고 불릴 것이다. 사랑하는 관계를 토대로 그들은 계속 전진해서 화신인 영혼들의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이해하려는 시도는 끝나고 그들은 합쳐져 있음을 경험할 텐데, 사랑에 잠겨있는 영혼들은 대등한 영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등해진다는 것은 사랑 속에 잠긴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로나 너희가 아버지와 대등해졌는지 너희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이냐? “영혼인 나는 사랑에 몰입해있다”라는 그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냐? 마찬가지로 나는 말, 행위, 봉사, 관계에서 아버지와 대등해졌는가? 아니면 여전히 커다란 차이가 있는가, 약간의 차이만 나는가? 차이를 끝내려면 “만마나바브”라는 위대한 만트라가 필요하다. 매 1초1초마다 너희가 모든 생각에서 위대한 만트라의 형태가 되는 것을 대등하며 그에게 합쳐져 있는 영혼이라 한다. 무한한 아버지는 자녀들 모두가 아버지와 대등해져야 하도록 무한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구루가 되고 나머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당하다는 느낌이 그에게는 없다. 아니다, 그는 너희가 아버지와 대등해져서 아버지 가슴의 옥좌에 앉혀지기를 원한다. 여기서의 단 하나나 둘만 가디에 앉혀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디에 앉혀지는 자가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 무한한 아버지는 너희를 무한한 가슴의 옥좌에 앉혀질 자들로 만들며, 자녀들 모두가 그 권리를 차지할 수 있다. 너희들 각자 모두가 똑같은 절호의 기회를 가진다. 너희가 초창기에 왔든 중간이나 또는 방금 전에 왔든, 너희들 모두 대등해질 기회를, 즉 가슴의 옥좌에 앉혀질 권리를 온전히 다 가진다. 마지막에 오는 자들이라고 해서 앞서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재산은 무한정하기 때문에 누구든 앞서갈 수 있다. 초창기에 온 자들이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해서 그것이 전부 다 끝난 게 아니다. 재산은 참으로 무한정해서 심지어 나중에 온 자들도 원한다면 얼마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권리를 차지하는 자들에게 달렸으니, 너희는 그 권리를 차지하는 것과 더불어 의존하는 산스카르도 역시 버려야 한다. 다른 어느 것도 아니고 단지 의존성뿐이다. 그러나 뭔가를 버려야 하는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너희는 이 측면에 발목이 잡혀서 너희의 산스카르가 너희를 놓아주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사실은 그것들을 놔주지 않는 것이 너희들 자신이면서 너희는 산스카르를 탓하며 그것들이 떠나질 않는다고 얘기한다. 살아있는 영혼과 산스카르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강력하냐? 산스카르가 영혼을 채택했느냐, 영혼이 산스카르를 익혔느냐? 산스카르가 영혼의 살아 있는 힘이나, 아니면 영혼이 산스카르의 힘이나? 그 산스카르들을 훈습한 것이 영혼이니 그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도 역시 영혼이며, 산스카르가 제 스스로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즉 그것을 너희들의 산스카르 또는 너희의 성질, 습관, 본성 등으로 부른다. 그러나 어떤 힘이 이 말을 하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은 습관이나, 영혼이나? 그렇다면 너희는 주인이나, 노예냐? 너희가 권리를 챙길 기회는 무한히 많지만, 즉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세울 기회는 무한히

많지만 그러나 너희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권리를 찾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나? 너희는, 그것은 내 습관이야, 내 산스카라가 그래, 내 성질이야, 라 한다. 그것들이 너희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그것들에 대한 권위가 없다. 만일 그것들이 너희의 것이라면 너희는 그것들의 주인이 아니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주인, 그 자신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그 권리를 차지하지도 못하는 주인을 너희는 뭐라고 부르겠느냐? 그렇게 나약한 영혼을,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자라고 부르겠느냐? 너희에게는 기회가 개방되어 있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등수대로는 아닌데, 바로 너희들 자신이 모든 것을 등수대로 만든다. 아버지의 가슴의 옥좌는 온 세상 전체의 영혼 모두가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크다. 그것은 참으로 무한한 형태이지만, 거기에 앉을 용기를 가진 자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가슴의 옥좌에 앉혀지기 위해서 너희는 진심에서 우러나 협상하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 아버지가 딜랄라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는 너희에게 마음을 주고, 또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합의가 이루어져 효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너희는 대단한 영리함을 보인다. 너희는 전체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약간을 따로 보관해 두고서 뭐라 하느냐? “저는 차츰차츰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한다. 너희는 한 번에 조금씩 흥정하는 편을 선호한다. 한꺼번에 협상을 타결하는 자들은 한 분에게만 속하고, 늘 한결같고 안정된 상태로 머물며 모든 일에서 1등을 차지한다. 한 번에 조금씩 흥정하는 자들, 한 척의 배가 아닌 두 척의 배에 발을 따로 딛고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형태의 혼란이라는 격동에 시달리느라 한결같이 머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계약 맺기를 원한다면 단 1초에 그렇게 해라. 너희 가슴을 갈가리 찢지 마라! 오늘 너희는 심장을 너희 자신에게서 분리시켜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붙인다. 너희는 그에게 한 조각을, 즉 일부만 준다. 그러다 내일이면 너희는 친척들에게서 마음을 떼어내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붙이고, 마음 한 조각을, 즉 두 번째 조각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버지의 소유물이라는 면에서 너희는 그 한 조각에 대한 권리만 차지할 것이다. 경험에 대한 성취라는 면에서 너희는 모든 경험을 다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겨우 조금만 경험함으로써 너희는 한결같이 가득해지지도 않고 한결같이 충족되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경험해야 할 만큼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자녀들이 지금까지도 일부 있다. 일부는 경험을 완전히 다 하지는 못한다고, 조금만 경험할 뿐이라고 얘기한다. 나머지들은 그것을 경험하기는 하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다. 계약을 완전히 맺지 않은 탓에 그들은 그것을 완전한 정도로 경험하지 못한다. 그들은 한꺼번에 계약을 맺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것을 한 번에 조금씩 하기 때문에 경험도 역시 한 번에 조금씩만 가질 뿐, 항상 경험하지는 못한다. 사실 이것은 참으로 고귀한 성취를 주는 협상으로, 너희는 목적 없이 이리저리 배회해온 마음을 주는 것이며, 마음의 위로자인 아버지의 가슴의 옥좌에 편안하게 앉을 권리를 차지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 계약을 협상할 용기가 없다! 너희는 이를 이해하고 그것에 관해 얘기도 하지만, 용기가 부족한 탓에 그 행운을 얻을 수는 없다. 이것은 좋은 계약 아니냐? 아니면 너희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계약이나? 그것에 관해 얘기할 때는 너희들 모두 그것이 좋은 계약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것을 행하기 시작할 때 너희는 그것을 힘들게 만든다. 사실 너희가 주는 것은 정말로 주는 것이 아니다. 쇠붙이를 주고 다이아몬드를 받는 것이 주는 것이냐, 받는 것이냐? 그런데 너희는 받을 용기조차 없느냐? 이런 이유로 아버지는 모든 이에게 똑같이 준다고 너희에게 말해주었지만, 기회가 개방되어 있어도 가져가는 자들은 등수대로다. 기회를 잡고자 한다면 그걸 잡아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그걸 할 수 없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불평을 너희에게서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초창기에 왔더라면 제가 앞서갈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는 앞서갔을 겁니다!” 이런 불평은 너희의 나약함일 따름이다. 외부상황은 너희들의 원래의 단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장애의 파괴자인 영혼들의 노력을 어떤 식으로든 방해할 수 있는 장애는 절대로 없다. 속도의 계좌는 시간 길이의 계좌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2년 전에 온 사람이라고 해서 앞서갈 수 있고, 두 달 전에 온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그것은 단 1초의 계약이다! 그러한즉 두 달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다! 그렇긴 하되 너희가 온 그 순간부터 너희의 속도는 빨랐느냐? 속도가 변함없이 빠른 자들은 부주의한 여러 영혼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의 때와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 영혼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뭐든, 너희가 발전하기를 원하는 그 정도만큼, 너희가 차지하기를 원하는 권리가 얼마나 많은, 너희는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축복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축복을 받았다. 너희는 축복의 공여자,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았다. 이해하느냐? 축복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그렇게 되어라! 나중에 축복의 때는 끝날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든 지금 그걸 성취해라! 뭘 하기를 원하든 지금 그걸 해라! 생각하지 말고, 결단력을 가지고서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든 그걸 해서 성공해라. 앗차.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자들에게, 1초의 계약을 맺는 자들, 즉 뭔가를 생각하자마자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변함없이 용기 있고 고귀한 영혼들에게, 주인으로서 변화의 힘으로 자기의 나약함을 끝내는 자들에게, 원하는 고귀한 행위를 행하는 자들에게, 그런 전능한 권위자 영혼들에게, 가슴의 옥좌에 앉혀지는 자들에게,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선생들을 만나심.**

너희는 스스로를 봉사자라 여기며 끊임없이 봉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 봉사자들이 봉사에서 성공하는 특별한 토대가 무엇이나? 봉사자는 항상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무엇이 성공의 토대냐? 바바가 오늘날 무엇에 너희들의 주의를 특별히 집중시키느냐? (버림입니다.) 버림과 타파샤 없이는 성공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버림의 화신이며 타파샤의 형상이 된다는 뜻이다. 타파샤가 무엇이나? 아버지 한 분에게만 속할 뿐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이 매 순간의 타파샤다. 버림은 또 무엇이나? 바바가 누누이 너희에게 일러주었듯이 본질적으로 봉사자의 버림은 때가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사람들이 어떠하든 편한 마음으로 너희 자신과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빛는 것이다. 상황이 어떠하든, 예컨대 너희가 때로는 이름을 버려야 하고 이따금은 산스카르를, 더러는 낭비적인 생각을, 어떤 때는 일시적인 물질의 편의시설들을 버려야 할지라도 너희는 그 상황과 때에 따라 너희의 단계를 고귀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유형의 버림이 요구되든 너희는 그렇게 해야 하고 너희 자신을 그렇게 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버림의 화신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버림, 타파샤, 그 다음이 봉사다. 버림과 타파샤는 봉사에서 성공의 토대다. 그러니 그 버림에 교만이 없는, 즉 너희가 뭔가를 버렸다는 교만이 없는, 그렇게 버린 자가 되어라. 너희가 이런 생각마저 갖지 않을 때 그것이 버림이다.

봉사자는 상급자들의 지시를 즉시 실천에 옮기는 자다.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는다면 그럴 때조차 너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희가 설령 옳다 해도 사람들을 도우라는 지시를 시니어들에게서 받으면 항상 “하 지 (네 알겠습니다), 지 하지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라. 이것이 봉사자들의 특질이다. 이것은 고개 숙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도 아니라 도리어 더 위대해지는 것이다. 때때로 너희들 중 일부는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제 스스로를 평가 절하하게 되거나 너희 이름이 깎일 것이라고, 너희 인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받아들이는 것은 존중받을 가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남들을 존중하는 것은 자아가 존중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존중과 특별한 대우조차 버리는, 그러한 봉사자가 되어라. 일시적인 존경과 특혜를 무엇에 쓰겠느냐? 순종한다는 것은 영원히 존경과 특권을 받는다는 의미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영원히 차지하기를 원하느냐, 지금만 차지하려 하느냐? 봉사자란 이 모든 것을 언제라도 버릴 준비가

항시 되어있는 자라는 뜻이다. 손윗사람이 뭔가 얘기하면 그걸 해라! 그렇게 특별한 봉사자들은 아버지와 모든 이에게서 사랑 받는다.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성공의 결실을 맺은 자라는 의미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일은 너희 자신을 하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결실로 너희가 충만해지는 길이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마치 너희 이름이 깎이고 상대방이 더 커지고 너희는 더 줄어든 것처럼, 너희는 아래로 끌어내려지고 상대방은 더 높아진 듯이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단 1초의 게임에 불과하다. 1초에 패배가 있을 수 있고 1초에 승리가 있을 수 있다. 1초의 패배는 영원한 패배여서 너희가 활과 화살을 든 달 왕조의 일부가 되게 만드는 반면, 1초의 승리는 피리를 불고 있는 크리슈나의 모습으로 상징되듯이 너희가 끊임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활과 화살을 손에 들고 있는 달 왕조에 속하는 자와 피리를 부는 자와는 참으로 크나큰 차이가 난다! 이처럼 그것은 1초의 문제가 아니고, 그 1초는 영원한 기반이다. 이 비밀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계속 전진해라. 너희들이 아버지 브라마를 보았듯이, 브라마 바바는 참으로 그 스스로를 낮추었다! 그는 자녀들의 발을 주물러 줄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겸손한 봉사자가 되었다.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다! 자녀들이 나보다 더 강연을 잘 할 수 있다!” 그는 “내가 먼저!”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다. 자녀들을 앞에! 자녀들이 먼저! 그는 자녀들이 손윗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너희 자신을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높이는 일이다. 이것을 진정 1등으로 가치 있는 봉사자가 되는 일이라 한다. 이것이 곧 너희들 모두의 목표 아니냐? 구자라트에서 많은 수의 봉사자들이 나왔다. 하지만 구자라트의 강들은 구자라트에서만 흐른다. 구자라트를 위한 시혜자가 되지 마라! 세계의 시혜자가 되어라! 변함없이 항시 준비되어 있어라! 오늘 너희가 어떤 지시를 받았든 그저 “하 지!” (네 알겠습니다!)라 해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 관리인이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이 어찌 될지에 관해 생각해야겠느냐? 한결같이 너희 자신을 제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초월해서 끊임없이 저 너머에 머물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애착과 의존에서 벗어날 것이다. 오늘은 너희가 여기 있지만 내일이면 너희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너희는 초월해 있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여기에 머물러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남들이 이렇게 되도록 내가 고취해야 해,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해...” 같은 느낌이 약간 들 것이다. 너희는 오늘 여기 있지만 내일은 거기에 있다. 너희들은 새들이다. 오늘은 너희가 나뭇가지 하나에 앉아 있지만 내일이면 다른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단계는 초월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마음의 단계는 한결같이 초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비록 너희가 20년 동안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도 항시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해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이것을 위대한 버린 자라 한다. 앗차.

**Blessing:** 합류시대의 중요성을 앎으로써 신의 축복으로 너희의 앞자락을 가득히 채우고 마야의 정복자가 되어라.

합류시대의 1초는 다른 시대의 1년보다 더 크다. 너희가 지금 이때에 1초를 잃는다면 그것은 1초가 아니고, 너희는 많은 것을 잃는다. 언제나 이것의 중요성을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가 매 1초1초마다 신에게서 축복을 계속 받을 것이다. 신의 축복으로 앞자락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자들에게는 마야가 올 수 없다. 마야는 먼 데서부터 도망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곧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길이다. 집중적인 노력이란 끊임없이 마야를 정복한다는 뜻이다.

**Slogan:** 순종적인 자들은 아버지와 가족에게서 축복 받을 가치가 있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